

아, 金銅蓋一個 一邊長 一五〇mm  
 環徑 四枚連接中央  
 八.五cm 金銅環付鐵製鈕  
 2, 南原發見品 (寫眞參照)

舍利器 一式 高一四  
 .二m 八角伏蓮圓  
 形迎蓮上에 方形函,  
 四方에 神將像別造  
 連結, 函內에 青色  
 유리舍利瓶  
 一, 九月三十日 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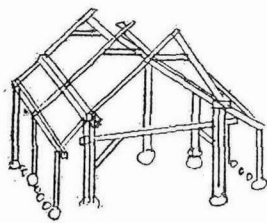
- 策委는 다시 文化財管理局에서 會合하고 다음과 같은 事項을 討議하였다.
- 1, 檢察, 文化財管理局, 本委員會의 連席會議을 早速한 時日內에 갖는다.
  - 2, 押收된 盜掘品이 不足하고 더욱이 核心的 重要品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
  - 3, 李秉珪氏 所藏品의 全體的 調查가 行해져야 할 것이다.
  - 4, 風聞에 들리는 金冠等 重要遺物의 行方을 徹底히 究明하여야 한다.
  - 5, 早速한 時日內에 一連의 被害文化財를 現地調查한다.

歐州 通信 (其一)

申 榮 勳

電鐵에서 내릴때까지만 하여도 간혹 햇빛을 보이던 하늘이 이제는 제법 굵은 빛줄기를 떨어뜨린다. 「코르트」기를 울리고 가락이나 우중충한 납작한 진물안에 들어서다 하마터면 나오는 사람과 이마 받이를 할뻔 하였다. 진물내부는 몹시 어둡고 조그만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겨우 남작한 가구와 침대를 식별하게 하는데 조금 어둠에 눈이 익으니 물레와, 요람, 철제스트브등이 보인다. ROOM에서 옮겨다 지은 一九七三年代의 漁夫의 집으로 當時에 生活하던 모습 그대로를 再現하고 있다고 동행한 건축학자가 설명한다. OPEN MUSEUM이란 俗稱을

第七卷 第十號 通卷七十五號



1. 있어 장작을 피우도록 되어 있다. 잘 사는 집의 바  
 다은 진물을 깔든지 벽돌을 이마추어 깔든지 마루  
 를 깔았고 그 보다 형세가 못한 조그만 집은 흙바  
 다 그대로 혹은 개울에서 주어진 돌을 울퉁불퉁하  
 게 깔았다. 잘 사는 집에도 바닥에 울퉁불퉁한

가진 이 FRILANDSMUSEET (코펜하겐에서 一二km 떨어진 조그만 마을 SOR  
 ENDR에 있은는 八十八에 이커의 敷地에 三七채의 옛날 住宅과 두개의 風車,  
 기타 배, 다리 등 七四점을 點在陳列하고 있는데 住宅에는 당시에 사용하던 家具  
 와 生活道具 一切가 사람손만 가면 곧 쓰여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 住  
 宅은 인근이나 먼섬에서 年次로 옮겨온 것인데 그중에 NO. 三〇은 지금 반쯤  
 짓고 있는 것이다. 건물과 진열품에는 자기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옮겨온 地方  
 別로 보면 NO. 五, 五九-六六, 七四가 Zealand에서, NO. 六, 六七-七一가  
 진 Funen에서 NO. 一四와 七一九, 그리고 二〇-四三은 Jutland에서, NO 五  
 四-五八 Southern Sweden과 Nothe에서, NO. 一五-一九가 Faeroe Islands  
 에서 옮겨온 것이라 하며 살던 사람의 실종으로 나누어 보면 그 大別하여 농사  
 꾼집과 어부의 집으로 나눌 수 있고 前者中에는 부엌처럼 수레만드는 방, 나막신  
 잣방이, 대장간, 방아간 등을 갖은 것이 있으며 後者 中에는 실제 사용하던 배  
 와 그물을 보관하고 있는 집과 아주 소규모의 토막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住宅  
 의 基本構造는 圖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아주 原始的인 架構 그대로의 것이 고  
 벽도 場所에 따라 쉽게 얻어지는 資材에 따라서 木材로만 혹은 흙벽으로 좀 잘  
 살던 집은 벽돌로 지었는데 흙벽의 증짚은 가는 막대기 (strå)라고 설명한다. 엮  
 꺾어 끼운 간소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가의 증짚을 연상케 한다.  
 방의 규모는 몇 집을 빼어 놓고는 대부분 三m 四方內외의 조그만 것이고天井도  
 아주 낮아 二m 이상되는 집이 별로 많지 않고 의외로 침대와 의자 등도 아주 작아  
 어떤 침대는 길이가 겨우 一m 四〇cm를 달할까 말까 하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침  
 실은 침대와 탁자 소박한 의자와, 물레, 접시와 컵 솥대 등이 놓여 있었을 뿐인데  
 어쩌면 그렇게 달았으랴 시피 船內를 연상시킨다. 아주 옛날 帆船의 船內를 그대  
 로 모방하여다 지은 집의 樣式인지도 모르겠다. 난  
 방장치는 별다른 것이 없고 방뿔은 곳에서 나는 餘  
 熱로 덥히도록 된 철제난로가 있는 정도이며 살림  
 이 유복하였던 집에는 방마다 따로 떼게 된 난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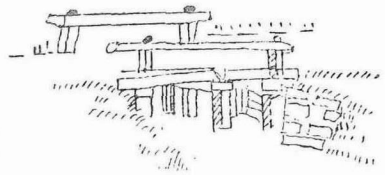


圖 2.

그 때까지 없었던 모양이고 벽에도 도배를 한 후에 각자의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 붙였다. 그나마 조그맣게는 흠뻑 채로이고 장식이라고는 접시를 걸어 놓는 선반을 모양냈을 정도이다. 도자기를 굽던 조그맣은 工房과 石橋는 대단히 흥미가 있었다. 도자기 공방은 가마만 角窯로서 다들 뿐 轉轡나 선반대는 것, 유약푸는 등, 도점, 같이질잡이나 삼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용기구의 집의 도구와 어찌면 그렇게 같은지 재미 있었고 다리는 난간을 아무렇게나 생긴 나무로 만든 石橋인데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과 동일한 모양으로 축조되어 있었다. 불과 백여년의 일한보람의 차이로 現代와 前代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등뒤로 느끼며 이 박물관을 나선 것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였다.

八月二日 서울을 출발 北極經由 丁抹에 온 후로 公報部主管의 韓國室設置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펜하겐에 돌아와 숙소인 호텔 View에 들어선 것이 땅 거머가 질투럽이었다. 내일부터는 기와일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초배를 시작하여야 되겠다. 딱딱하게 마른 빵을 씹으며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나라에도 이런住宅博物館이 있어 各級住宅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생긴다. (九月十九日)

### 復軒白華詩畫合璧帖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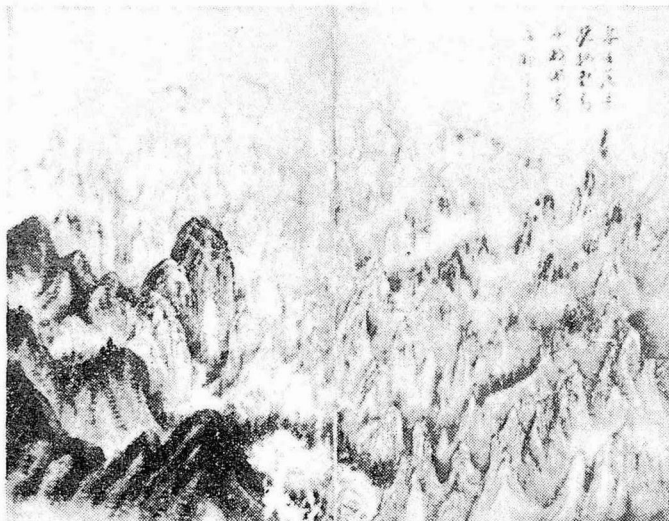
— 第七卷 第十一號 通卷七十六號 —  
— 主로 檀園의 在世年代에 關해서 —

崔 淳 雨

大邱의 金鍾麟醫學博士의 好意로 그분이 所藏한 「復軒白華詩畫合璧」이라 題簽한 畫冊을 본 일이 있다. 이 畫冊은 英祖壬辰(一七七二)년에 復軒 金應煥(一七四二—一七八九)이 그 弟子 檀園 金弘道를 爲하여 그려 준 金剛全圖와 正祖己亥(一七七九)년에 檀園 自身이 白華子 洪愼猷에게

請해서 받은 이 그림에 對한 長文의 跋記 등이 內容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이 畫冊은 轉轉해서 八·一五前 柳子厚氏所藏이 되었고 同氏는 一九三一年 葦滄 吳世昌翁에게 跋文을 請한 바 있어 이 畫冊의 末尾에는 以上の 由來를 거듭 밝힌 葦滄翁의 一文이 添加되어 있다.

卷首에 붙어 있는 金剛全圖(三五·六cm X 二六·七cm)는 紙本에 水墨淡彩로 皆骨山一萬二千峯을 集約해서 그린 金剛山全景圖로서 近景으로 米法의 푸른 群峯을 配한 솜씨로 보아 흔히 謙齋의 金剛全圖에서 볼 수 있는 畫想과 흡사한 作品이다. 이 畫幅의 右上部에 「歲壬辰春 擔拙堂爲西湖做寫金剛全圖」라 한 復軒의 自題가 있어서 이 그림의 畫意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西湖라 한 것은 물론 檀園의 少時에 쓰던 別號의 하나이며 擔拙堂 또한 復軒이 쓰던 別號였던 것이다. 이 畫冊에 檀園을 爲하여 글을 써준 白華子 洪愼猷는 正祖己亥 當時(一七七九)五十八歲의 老境에 있었음으로 金應煥보다는 二十年 年長 檀園보다는 約三十年 長上이 되는 同時代인이었다는 것은 이 글 內容으로 보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金士能年未三十以畫名於世蓋天才高也」云云한 대목은



復軒이 쓰던 別號였던 것이다. 이 畫冊에 檀園을 爲하여 글을 써준 白華子 洪愼猷는 正祖己亥 當時(一七七九)五十八歲의 老境에 있었음으로 金應煥보다는 二十年 年長 檀園보다는 約三十年 長上이 되는 同時代인이었다는 것은 이 글 內容으로 보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金士能年未三十以畫名於世蓋天才高也」云云한 대목은